

천태종 전폭지원...금강대 개교 1년

‘소규모 특성화 대학’ 자리매김

운영효율 위해 서울대에 조직진단 의뢰



소수정예 교육과 과감한 투자로 관심을 모은 천태종 종립 금강대(총장 박봉식)가 11월 7일 개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금강대는 세계화와 정보화를 목표로 국제적인 시각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또 신설대학이라는 낮은 인지도와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소규모 특성화 대학’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해

왔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발전을 위해 서울대에 조직진단을 의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개교 1년, 금강대는 전교생 장학생, 교수 1인당 학생 5명, 최첨단 교육시설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바탕으로 첫 해에 52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2004학년도에는 26명의 수시합격자를 모집하는 등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우수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설립재단 천태종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강대는 주목받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금강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3년 후해야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금강대는 아직도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외연을 넓혀나가야 우수대학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또한 200여 곳이 넘는 다른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치밀한 차별화 전략과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최상재 금강대 기획실장은 “막대한

한 재정과 오랜기간을 투자해야 하는 교육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과 교직원,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수대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는 개교 1주년을 맞아 1학년 재학생 52명과 2004학년도 수시합격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7일 자관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ews.com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 2차분 10만장 북에 전달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해 지원하는 2차분 ‘통일기와’ 10만장을 11월 10일 북한 조선경제협력위원회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를 위해 천태종 대표단 9명을 포함한 39명도 방북했다. 출발에 앞서 천태종은 임진각 광장에서 ‘영통사 복원 원만성취 2차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용 통일기와를 당초 40만장보다 6만장이 늘어난 46만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10월 27일 있었던 1차 전달방문에서 6만여장의 기와가 더 필요하다는 수요예측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기와 생산 일정과 영통사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전달 일정을 3차(10만장) 12월 4일, 4차(10만장) 2004년 3월 11일, 5차(6만장) 2004년 3월 23일로 변경했다.

박봉영 기자



죽산대종사 초대 종장 추대

한국불교임제선학원(총무원리 마정)은 11월 2일 성남 서광사에서 해태당 죽산 대종사를 초대 종장(종정)으로 추대했다. 총무원리 마정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종장 죽산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기틀을 다지고 종풍을 널리 선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중국 임제종 방장 가상스님과 대만 임제종 방장 정심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추대법회에 이어 국제보살대계 수계법회를 열고 1천여 불자들에게 계를 주었다.

박봉영 기자



열반종, 와우정사 우표전 열어 열반종(총무원장 해곡)과 용인우체국(국장 이정근)은 11월 3-5일 용인우체국 공중실에서 제1회 용인 와우정사 우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와우정사 우표를 소재로 만들어진 우표 시안 36종의 작품이 선보였다. 사진은 전시회 개막테임을 끊는 모습.

천태·진각 宗祖 사상·업적 조명

천태종 14일, 진각종 15일 학술대회

천태종 종조인 천태지대사와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각각 열린다.

천태종은 11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대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재창)이 주관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두지현 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의 ‘일념삼심 해독’ 논문과 타다 코요본

일본 대정대 교수의 ‘천태대사와 유마경’, 장 노엘 로베르 파리국립대학 원대학 교수의 ‘종교사에 있어서 천태학의 의미’ 논문이 각각 발표된다. 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이평래 충남대 교수의 ‘원효의 천태지관 수용’ 논문과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의 ‘천태교단의 관음행법 의례’ 논문도 소개된다.

다음날인 11월 15일에는 진각종이 ‘진각종문의 형성과 계승’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회당학회 주최로 대구 진각문화회관에

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회당학회 회장 혜정 종사의 주제 강연과 덕일 위덕대 정교실장, 경경 위덕대 부총장, 장의 위덕대 교수, 김경집 진각종 총무원장, 상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총평은 시경심인당 주교 지광 대종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진각종은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서서성 법문사에서 ‘육자진언과 만다라의 세계’를 주제로 한 중·불교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진각종 회당학회와 중국불교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측에서 발표자·참관인 등 80여명이 참가하며, 중국측에서도 50여명의 중국불교협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조동종 내년예산 확정

조동종 중앙종회(의장 진일)는 11월 6일 서울 목동 총무원에서 제30회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1억5천여만원의 2004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은 △중국불교 성지 참배 및 아미산 동방대불 수목영산대제 불행 △제9차 승려 연수교육 및 법계고시 △금강산, 개성 성지순례 등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종도수협과 종단 의식집을 출간하고, 종단 로고와 법계별 뺨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종단소식

밀각심인당 50돌 행사

진각종 서울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은 창건 50주년을 맞아 12월 20일 밀각문화제, 북한미술품 특별전, 밀각 50년 사진전, 노인잔치, 기념법회, 밀각 50년사 발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이에 앞서 밀각심인당은 한국전쟁 중에 호국도량으로 건립된 취지를 되새길 수 있도록 11월 3일 국가안정을 위한 49일 대장진 불공에 돌입했으며, 12월 21일 기념행사와 불공을 모두 회향할 예정이다.

미암사 달마상 정안

대각종(총무원장 만정)은 종단 본좌인 부여 미암사에 달마상과 대좌비를 봉안, 11월 16일 오전 10시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 이어 불자 연예인 초청 공연과 청도와 불 봉안을 위한 모연행사도 열린다. 미암사의 달마상은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의 주석처인 소림사에서 기증받은 영정을 바탕으로 조성됐으며, 대좌비에는 달마대사의 행적과 달마상 봉안을 기념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041)832-1188-9

본원종 정기중앙총회

본원종 중앙총회(의장 대운)는 11월 27일 서울 평창동 본원정사에서 총무원 청사에서 불기 2547년

게시판

행사 ▲부산 불문대중합사화복지단은 11월 15일 오전 10시30분 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사하구 관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전화 또는 내방. (051)264-9033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29-30일 포천 명성연수원에서 ‘중간 관리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계 직능단체별 실행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워크숍은 불교 아카데미 정웅기 실장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김명희 부장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34-8050

▲조계종사화복지재단은 11월 13-27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가정생활교육특강을 실시한다. 35명 선착순 접수. 수강료 무료. (02)723-5101

모집 ▲범어사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실버터치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초·중·고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50세 이상 퇴직교사.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진, 통장 사본 각 1부. (051) 516-6898

▲동국대는 야간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의 200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학과, 불교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장례문화학과 등 석사과정과 지도자과정. 원서접수는 11월 3-17일, 석사과정 입학전형은 19일 오후 1시에, 지도자과정은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실시된다. (02)2260-3097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야간 특수대학원인 불교문화대학원의 2004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전공분야는 불교학, 선학, 국학, 불교미술, 장례문화, 불교상담 등. 원서접수는 11월 10-20일, 전형일시는 22일. (054)770-2397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치매 어르신 돌봄 간병인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55세 미만 간병인 경력자로 간호조무사와 케어복지 이수자는 우대한다. (02)466-6248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 방문 이·미용봉사자를 모집한다. 노환과 건강문제로 거동이 어려운 재가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수시모집. (02)2203-3677

구인 ▲남양주 보광사는 상담부장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해당분야 유자격자 및 3년 이상 경력자. 모집인원은 1명이며 준비서류는 이력서 1부. 전화접수 후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031)594-1316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원이제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태풍 “매미” 피해사찰

하동군 여래사 대응전 불사 권선문

권선안내문

소납은 곡성 성륜사 청화큰스님의 문중으로 불도에 입문하여 부족하나마 반듯이 수행정진하며 성륜사에서 지장기도6년, 경복 김룡사 지장전 일기도, 김제금산사 보광에서 아미타 3년기도를 회향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며 오직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소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납은 발심하여 경남하동군 북천면 소재 여래사에 부처님을 모실 대응전 건립불사를 진행중에 뜻하지 않게 태풍 “매미”로 공사중이던 대응전은 쓰러졌고 요사채 지붕도 날아가 버려 이 불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해야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소납의 마음은 천근으로 부처님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전국의 불자님, 여래사 대응전불사가 진행되어 원만히 회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요, 이권선이 원만하여 하루속히 대응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불기 2547년 10월
주지 정수 합장

▲태풍 “매미”로 무너진 대응전

▲태풍 “매미”로 지붕이 날아간 요사채

온라인계좌
 농협 833125-52-048739
 우체국 611608-02-025357
 예금주: 영경림

대한불교 조계종 여래사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064번지 TEL 055)883-5879 · HP 011-207-5789